

전·현직 단원들 세대 초월 '하모니'

작가 5명, 자연에 대한 저마다의 시선

일상의 페이지 '자연과의 거리' 전 다음달 7일까지 영산강문화관



광주연우회가 창단 50주년 기념공연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빛고을문화사민회관에서 선보였던 공연 장면. <광주연우회 제공>

광주연우회 창단 50주년 공연 29일 광주예술의전당

성악·피아노 포핸즈 등 다채...창단 과정·인물사 상영도

“광주연우회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은 원로 회원(OB)인 강양은, 박인수, 서영화, 구복희 등을 초청해 젊은 회원(YB)들과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연우회 창단 과정과 그간의 인물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연 중 상영할 예정이죠.”

광주연우회(연우회) 신동민 사무국장은 연우회 창단 50주년 기념 연주회 'Since 1974 아주 오래된 외출'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우회는 광주에서 공연을 함께 즐기는 '벗(友)'들이 모인 단체로, 매년 기획연주회 이외에도 요양원, 수도원, 병원 등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펼쳐 왔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하며 2피아노 8핸즈, 클라리넷 솔로, 플루트 듀엣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신 사무국장은 “지금껏 광주 연우회에서 활동해 온 김정수, 정은순 등을 비롯해 은퇴한 음악가들이 함께 ‘창단 50주년’의 기쁨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 공연을 기획했다”며 “아주 오래된 외출”이라

는 주제는 옛 것의 가치를 재발견해 창조적 음악을 이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연주회는 맥 윌버그의 '비제 오페라 카르멘' 주제에 의한 환상곡 2피아노 8핸즈'로 막을 연다. 피아니스트 김연, 이지은, 나원진, 강효미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주곡 같은 명곡을 모체 삼아 독특한 독립곡으로 완성된 걸작이다. 이어 클라리넷리스트 박인수는 폰 베버 곡 '클라리넷과 피아노 변주곡 Op.33'을 독주하고, 서영화·구복희는 피아노를 '리베르탱고'와 '나이트 클럽 1960'을 포핸즈로 들려준다. 특히 탱고의 역사 중에서도 세 번째로 꼽히는 '나이트 클럽 1960'은 모던함과 독특한 탱고 리듬이 공존하는 곡이다.

이들은 모두 광주 연우회를 오래 지킨 '터줏대감(OB)'들이다. 서울대 음대 기악과 및 독일 뮌헨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한 박 씨는 광주시향 클라리넷(수석) 주자를 역임했다. 현재 안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있다. 아울러 조선대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서영화, 구복희

피아니스트는 각각 조선대 음악교육과 명예교수, 전남과학대 음악과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테너 임영빈이 부르는 솔로곡 '하늘과 바다', '청산에 살리라',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솔로 '임그리는 마음', '저 구름 흘러가는 곳'도 레퍼토리에 있다. 임 씨는 전남대 음악교육과 및 음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서강중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조선대 음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강 씨는 현재 호신대 음악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이 밖에도 포퍼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안단테 론도 Op.25'는 플루티스트 변에는·변성호가, 스트링 앙상블 '생일 축하 변주곡'은 김도연·한효선 등이 연주한다.

끝으로 전 단원들이 출연해 부르는 코러스 앙상블 무대도 펼쳐진다. 윤학준의 가곡 '마중', 김효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남도타령', '강원도 아리랑' 등을 부른다.

신 사무국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연우회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연주회를 기획해 음악 애호가들과 교류해 왔다”며 “연우회의 신규 단원들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이 연우회 100년사의 초석을 다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조은정 '꿈꾸는 나의 정원'

들 모습은 애처롭게 그치지 않았다. 먼 허공을 향해 울부짖는 듯한 북극곰들은 언젠가는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일지 모른다.

전시 연계활동으로 업사이클링 아트 워크숍 '조각 액자' 만들기 체험도 예정돼 있다. 전시 관람 후 활동 키트를 받아 오는 7월 3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한편 이현정 과정은 “이번 전시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며 “자연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위기라는 사실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우리 마을 들썩이는 판굿 한 판



'사시사철 굿이여' 전통 공연을 펼치고 있는 광산농악보존회 단원들의 모습. <광산농악보존회 제공>

광산농악보존회 29일 '사시사철 굿이여'

우리 전통의 신명을 한 판 놀음으로 풀어내는 '굿판'은, 마을 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해원상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공동체' 의미를 환기하는 판굿이 연속으로 펼쳐진다.

광산농악보존회(이하 광산농악)가 '사시사철 굿이여'를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산농악 전수관에서 선보인다. 사시사철을 대표하는 농악 연행을 듣고 즐기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자리로 10월까지(7월 제외)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도깨비 굿을 주제로 한 '사시사철 굿 공연'으로 막을 연다. 도깨비에게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꼭 들어준다는 데 모티브를 얻어, 두두리 타

악을 통해 사라져가는 도깨비 문화를 떠올리자는 취지다.

이어 '들여다본다'는 말의 전라도 사투리에서 착안한 '광산농악 데다보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산농악의 약기별 유래와 전승과정, 광산농악만의 특징 등을 전수자에게 직접 들어보고 배워보는 시간이다.

이 밖에도 상시 운영하는 '바나', '죽방울', '죽마', '큰기 돌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진행한다. 8월 31일에는 백종 무렵 마지막 풀을 매고 북을 치던 '만드리 굿'이 예정돼 있다. 9월 28일에는 '농악 콘서트'라는 주제로, 10월 26일은 잡색놀이 중 하나인 '도둑잡이 굿'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출신 오성인 시인과 '북토크'

다음달 3일 전일빌딩245...산문집 출판 계기 등 이야기

광주 출신 오성인(사진) 시인은 '광주'를 모티브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시인이다.

그는 최근 펴낸 에세이집 '세상에 없는 사람'에서 오월 광주와 시대의 격랑에 휩쓸린 아버지 삶을 잔잔하면서도 깊이있는 시각으로 풀어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두 번째 시집 '이차는 어디로 갈까'에서 80년 5월과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구현했다.

오 시인은 "에세이집은 거대한 역사 이야기도 흥미진진한 서사도 아니다. 내 아버지의 이야기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기

도 하다"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5·18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주변에 드러워져 있는 작은 지류와도 같은 일화들이다. 단지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 5월의 역사를 알리고 싶었다"고 출간 이유를 말한 바 있다.

오성인 시인 북토크 '세상에 없는 사람 그리고 시'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30분 전일빌딩245에서 열린다.

도시출판 걷는사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북토크는 산문집을 준비하게 된 계기, 아버지의 근황, 산문집 이후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대



고 독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연건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3>(주)대신수산유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3>금남로 사주 카페</h3>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3>석당화랑</h3> <p>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면쟁이</h3> <p>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요미,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3>(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h3>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h3>박당화랑</h3> <p>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대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무크광주세정점</h3> <p>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3>도명명리심리연구소</h3> <p>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송가네 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3>다흥치마 한정식 전문</h3>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3>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3>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3>光州日報</h3>			